

朴대통령, 선수들 이름 일일이 부르며 기량 칭찬

U대회 주역 청와대 오찬 이모저모

겔스데이 등 축하공연 화기애애 김국영 “내년 올림픽 꼭 결승 진출”

박근혜 대통령이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서포터스, 조직위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23일 오찬간담회는 청와대 연무관에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운장현 광주시장의 인사말과 유병진 선수단장의 대회 개최 및 참가결과 보고, 영상물 시청 등으로 순서로 진행됐다. 또 박 대통령의 축사와 축하공연, 선수들의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의 축사 전에 선수단 대표로 나온 유현지(수영)·정현(테니스) 선수는 성화봉과 라켓을 박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번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사상 첫 종합우승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역량을 아낌없이 보여줬다”고 치하한 뒤 ▲5년 만에 육상 100m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김국영 선수 ▲언니 리더십을 보여주며 멋지게 재기에 성공한 기보배 선수 ▲발목에 진통제를 맞으면서도 리듬체조 3관왕에 오른 손연재 선수 등을 직접 거론하며 “많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투혼을 보여줬다. 그 밖에도 대회에 참가했던 모든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줬다”고 격려했다.

오찬 후 케이윌과 겔스데이의 축하공연이 이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광주 유니버시아드 선수 및 관계자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이 '겔스데이'의 공연을 휴대전화에 담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U대회 성공 개최 주역인 광주시와 조직위, 자원봉사자, 서포터스, 의료진을 비롯한 교통통제 등 불편을 참아준 선수촌 인근 주민 대표 등 광주시민 200명과 한국 선수단 등 450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졌고 이후에는 조우중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참석자들 소감 발표가 진행됐다.

남자 유도 73kg급에서 금메달을 딴 '재일교포 3세' 안창립 선수는 일본의 귀화 제의를 거부한 이유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어릴 때부터 태극기를 달고 국제대회에서 활약하는 것이 목표라 귀화를 안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태극마크를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할아버지가 태어난 나라라서 내가 귀화 안 하고 여기에서 국가 대표로 뛰는 것이 더 맛있다고 생각했다”며 내년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을 다짐했다.

달리기 100m에서 한국신기록을 0.7초나 단축한 김국영 선수는 “올림픽 출전권까지 따내 두 배로 기뻐했다”며 “늘 올림픽 100m 중계방송이 될 때마다 ‘한국 선수는 왜 없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꼭 결승에 진출해서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75년에 간호사로 독일로 가서 23년간 프랑크푸르트 등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돌아온 파독간호사 출신으로 광주 대회에서 자원봉사 활

동을 한 베버 남순씨는 “제가 1975년 독일로 갔을 때 일본에서 왔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1988년 올림픽 이후에는 한국에서 왔느냐고 물어본다”며 “스포츠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이번 대회에서) 국제의무위원회 소속 의사이신 독일분 닥터 카트만 씨를 통역해 드렸는데, 저도 독일에서 일했던 추억도 많이 스쳐갔고, 독일 의사분께서도 저와 함께 이번 U대회 때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겠다고 말씀했다”고 소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朴대통령, 오늘 창조센터 지원 재계 총수 17명 초청 오찬

대규모 면담 취임후 처음...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투자도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전국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 지원하는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와 오찬을 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참석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광주), 허창수 GS그룹 회장(전남),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전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대구 및 경북센터), 김창근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대전 및 세종), 권오준 포스코 회장(포항), 구본무 LG그룹 회장(충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부산), 황창규 KT 회장(경기),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경남),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강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충남),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제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제주),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울산), 손경식 CJ그룹 회장(서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인천) 등 17명이다.

박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난 것은 지난 2013년 8월28일 민간그룹 총수와의 오찬간담회, 올해 2월24일 메세나 활동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재별

그룹 총수 등과의 오찬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그룹과 대기업 및 IT기업의 수장 17명이 모두 참석해 박 대통령과 면담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간담회에선 삼성, 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 총수만이 참석했고, 올 2월에는 메세나협회 및 전경련, 문화예술 지원기업 대표 등이 함께하는 형태로 간담회가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전날(22일)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끝으로 전국 17곳의 센터 출범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변인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나아갈 방향, 아쉬운 점, 지금까지 나온 성과 등을 공유하고 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 올 하반기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재계의 동참 등 당부 메시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호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휴간담회 참석자



광주	현대차	정몽구 회장	자동차 산업 창업·수소연료전지차 지원 서민창조경제기금(100억) 조성
전남	GS	허창수 회장	농식품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K-푸드 육성 K-투어 개발, 바이오화학 거점 플랜트 구축
전북	효성	조현상 부사장	20개 탄소소재 히든챔피언 선정·육성 파이낸스존 설치, 전통문화·농식품산업 재도약 지원

10년뒤 한국사회 이슈 저출산·고령화·불평등 미래부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

10년 뒤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10대 이슈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이 꼽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래준비위원회는 작년 12월 한국이 당면할 미래 사회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주요 이슈들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과 국가정책 연구포털사이트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에서 총 28개의 분석 대상 이슈와 미래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래기술(핵심기술) 15개를 선정했다.

그다음 학계·연구계의 전문가와 미래 세대인 대학생 등 1477명을 대상으로 중요 이슈와 그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력, 이슈 간 상관관계 등을 묻는 인식 조사를 벌였다.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이 꼽혔다. 여기에 고용 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황사·미세먼지·해양오염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사이버 범죄, 에너지 및 자원 고갈도 10대 이슈로 지목됐다.

10대 이슈는 대부분 발생 가능성과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슈에는 안 들었지만 디지털 경제, 초연결사회도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점쳐졌다.

위원회는 다시 전문가들만을 상대로 이슈 간 연관관계 및 이슈와 기술 간 연관관계를 물었다.

그 결과 다른 이슈와 연관관계가 높은 이슈는 ▲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 고용 불안 ▲ 불평등 문제 ▲ 산업구조의 양극화 ▲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 초연결사회(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끼리, 기기끼리 또는 사람과 기기가 유무선 망으로 연결된 사회) ▲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 재난 위험 ▲ 글로벌 거버넌스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그 자체로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슈지만 다른 이슈들과의 연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과학기술과 긴밀하게 연결된 이슈로는 ▲ 제조업의 혁명 ▲ 재난 위험 ▲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 생물 다양성의 위기 ▲ 에너지 및 자원 고갈 ▲ 난치병 극복 ▲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 산업구조의 양극화 ▲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이 순서대로 지목됐다.

과학기술 중에서는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다양한 이슈와 높은 연관관계를 갖는 핵심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의원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경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인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